

삶의 힌트

이즈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5·끝) 낫다

‘죽음’을 가슴 두근거리리는 기분으로 받아들이세요

‘완쾌 축하’ 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 완치되어 병중의 호의에 감사하고자 여러 지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 인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질색하는 편입니다. 문병하는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품 잡지 않아도 될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나빠서 죽을 지경인 상태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건 병문안을 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친구가 죄수복 같은 파지마를 입고,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르고, 다크셔클이 내려와 침대에 누워있다면 역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게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괴로운 게 다가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유행하는 플러스 사고라는 것에 톡 익숙해지지 않아서 사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낫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완치되었다’는 표현을 들으면 고개를 가웃거리게 됩니다. ‘낫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병이나 상처가 좋아져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는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낫는다’는 말을 지극히 대수롭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따뜻하게 하고 사흘 정도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완전히 나았습니까?”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전에 스키를 타다 빼었다면서? 이제 다 나왔어?”라는 대화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기나 발목은 나왔어도, 좀처럼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견 나은 것처럼 보여도 정확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부러진 안경 원래대로 뚫고쳐

제게는 20년 동안 쪽 쓰고 있는 오래된 안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게에서 산 뒤로 렌즈만 바꿀 뿐,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년 쯤 전에 안경테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가게를 찾아 새 안경을 찾았는데, 수십 년도 더 된 옛날 제품이라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부러진 플라스틱 테를 접착제로 붙이고, 그 위를 셀로판 테이프로 감고, 매직 잉크를 발라 어찌어찌 때워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완전히 고치는 것은 무리인지라 지금은 조심조심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물며 사람은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존재입니다. ‘나았다’고 해도 결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큰 상처를 입은 몸과 마음이 그럼으로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나올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쪽 해온 생각 중 하나입니다.

‘원래대로 된다.’, ‘건강해진다’라는 것과 ‘낫는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병으로 학교를 쉬었던 학생이 건강해져서 다시 통학하게 될 때,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쉬고 있던 사이에 수업 진도가 부쩍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나 그룹 멤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교사가 와서 수업 방식이 변경됐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가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기한 마라톤 선수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전부 옛날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물은 물 흐르듯이 시시각각 흘러가고, 결코 두 번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즉, 완전히 ‘낫는다’는 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가 ‘낫지 않는다’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몸에 생긴 상처도 ‘낫지 않는다’ 게 아닐까요?

일견 걸으려는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기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엮이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일단 일어난 일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한번 엮이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이야기인데, 무능하고 출세를 못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에게 정나미가 떨어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큰 출세를 하자 아내는 인연을 되돌리기를 원하며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반의 물을 땅에 흘리며 “이 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당신의 말을 들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쩐지 심술궂은 남자라는 느낌도 들지만, 어쩐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사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쏟아진 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쪽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저 자신을 수시로 타이르며 명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최근 새삼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유명한 전문가가 쓴 글 속에서 이런 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암세포가 퇴축했거나 또는 진행이 현저히 둔화됐다는, 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낫는다’는 원상태가 아닌 변화된 것

‘낫지 않는다’ 부분 인정하고

‘포기’의 밑바닥에 도달해야

비로소 새로운 삶 꿈 꿀 수 있어

즉, 전문의의 말은 ‘암은 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 잔혹한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암에 걸려 괴로워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렇게 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라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당사자라면 깊게 상처입거나 충격을 받을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말에는 거역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암이 완치됐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고 무사히 생존한 경우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견디고 재발하지 않았을 때 ‘나았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의료계의 상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의 수치는 둘째 치고, ‘나았다’는 것과 ‘나았다고 간주하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암을 노화의 한 표상으로 보는 방식에 저는 예전부터 순순히 동조했습니다. 인간은 늙어간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늙기 때문에 ‘노인’ 같은 불쾌한 현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증이 심해지고, 반사 신경도 둔해집니다. 노화가 몸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키도 작아집니다. 저 역시 30대 무렵에 비해 60대인 지금 1센티미터 넘게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 적혀 있는 키는 실제보다 1.5센티미터 정도 큰 셈입니다. 체중은 반대로 늘고 있어 곤란합니다.

60세를 넘기 뒤부터는 직접 운전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레이싱 팀을 만들어 마카오 그랑프리에 참가했을 정도로 차를 좋아했

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

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잡한 도로나 교통 정체가 싫어서도,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시력 중에서도 특히 ‘동체 시력’이 심하게 저하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사 신경 역시 젊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차는 파워가 있어 누구라도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액셀을 가볍게 밟기만 해도 금세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가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저의 운전 능력은 떨어졌는데 차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그 불균형이 불안해서 운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면허증은 금색 선이 들어간 5년 면허가 됐습니다. 운전하지 않는 한 위반도 교통사고로 일일킬 방법이 없으니까요.

노화는 자연의 이치

“70세가 넘으면 진화색 포르쉐 카레라를 몰 거야”라고 동료나 젊은 친구들에게 공언했던 제가 바야흐로 뒷좌석에 앉게 되었으니 한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운전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이 핸들을 잡지 않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남보다 차에 관심이 많아 운전 기술에도 잔소리가 심했던 저인 만큼, 저는 제 판단이 0.1초라도 늦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표선에서 1밀리미터 벗어나 커브를 도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동체 시력이나 반사 신경의 퇴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만큼은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저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한 트레이닝과 정신 집중으로 어느 정도는 젊은 시절의 운전 기술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배는 냉정함이나 판단력, 성숙 도라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쾌해도 용기를 갖고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포기’도 하나의 지혜라는 걸 인간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같은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고, 집념을 계속 불태웠던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집념, 노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강한 의지와 한결같은 열정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노화를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젊어지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인 중에 “저 사람은 귀신이야!”라고 주위 사람들이 수군대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나이에 비해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생기발랄하게 일상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영원히 나이가 안 들지 않을까, 라고 저 역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20년간 모습이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한 지인에게 그 부인이 얼마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역시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이 모두가 이야기하듯 ‘귀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안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성숙해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저 역시 일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노화는 단순한 퇴화의 과정만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갈고닦여, 높고 깊게 성숙해지는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높아지는 만큼 꺾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성이 깊어지는 한편 시드는 정감이라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낫지 않는다’ 부분을 인정하고, ‘포기’의 밑바닥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꿈 꿀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낫지 않는다’ 부분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할 뒤에야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여행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인간은 모두 내부에 암을 품은 존재입니다. 늦든 빠르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순히, 그리고 밝게, 가능한 가슴이 두근거리리는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부디 머리카락 한 올만큼 좁은 그 길을 언젠가 찾고 싶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이냐는 기자**

이 글은 이즈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유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